JFMSE, 28(1), pp. 258~265, 2016.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8권 제1호, 통권79호, 2016.
www.ksfme.or.kr
http://dx.doi.org/10.13000/JFMSE.2016.28.1.258

#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 참여 지체장애인의 건강과 사회화 경험

김 정 수†
(부경대학교)

# Socialization and Health Experiences of Physical disabled Adults in Public Welfare Program

Jeong-Soo K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to describe and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the physical disabled adult attending in public welfare program. The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from seven persons and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phenomenology of Colazzi. The procedural steps were that described the phenomenon of interest, collected participants' descriptions of the phenomenon, extracted the meaning of significant statements, organized the meanings into them clusters, wrote exhaustive descriptions and then incorporated data into an exhaustive description. The finding in 129 re-statements, 63 constructed meanings, 35 themes, 13 theme clusters, and six categories were deduced. The six categories were 'Life patterns exclusive health', 'Powerlessness by physical disabilities', 'Social supports', 'Positive motivation', 'Seeking to be holistic health', and 'Sense of accomplishment'. The study identified that social welfare program for the disabled necessities for health, learning, economy and their future in success. Therefore, we suggest there may be a need for supplying professional program for their health and welfare.

**Key words : Qualitative research, Health promotion, Disabled persons, Socialization**

## Ⅰ. 서 론

현대사회의 문명이기와 의료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장애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국내 장애인은 인구 1만명당 559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중 후천적 장애률은 88.9%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또한, 장애인구의 고령화는 소득 및 의료문제를 가중시키며,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이는 사회적 책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다각적 장애인보호정책과 소득 및 의료적 관심사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비록 장애인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국가의 복지정책에 의존하여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장애율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유병률 증가는 건강수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의 측면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장애인의 의료적 차원에서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784, downey@pknu.ac.kr

의 연구는 재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재활서비스에 대한 희소성과 경제적 어려움(Choi, Gyeong-Jin·Kim, Keon-Yeop·Lee, Duck-Hee·Han, Chang-Hyun & Choi, Se-Mook 2011), 건강관련 삶의 질과 사회적지지, 우울과의 관련성(Kim, Kye-Ha·Kim, Ok-Soo, 2005; Kim, Sang-Youp·Kang, Kyung-Sook·Kim, Seung-Hee·Lee, Jeong-Un & Chang, Mi-Young 2015), 재활간호프로그램의 효과검증(Lee, Hea-Young 2006) 등으로 재활서비스가 장애인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밖의 국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낙인감에 대한 영향요인(Lee, Jee-Soo 2011),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분석(Ko, Un·Mok, Hong-Suk 2013), 정보화 교육 문제점(Lee, Sung-Dae·Hong, Jung-A & Yeum, Dong-Moon 2012)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의료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 입장에서의 프로그램 참여의 경험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외 문헌에서는 장애와 비만의 경험(Pain & Wiles 2006), 직업재활의 효과(Verhoef, Roebroeck, Schaardenburgh, Floothuis, & Miedema 2014), 신체장애에서 레크레이션 활동의 효과(Gretebeck, Ferraro, Black, Holland, & Gretebeck 2012) 등 보다 구체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만성질환 중 장애인의 비만에 대해 다루고 있어, 건강과 관련된 삶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연구는 주로 지체장애의 재활에 초점을 두어 재활서비스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신체적 재활이외의 장애인의 교육적 요구에 대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교육요구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참여경험을 탐구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내용과 맥락에 대한 기술을 통해 지체장애인의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 Ⅱ.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으로 참여자들의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에서의 공통된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여 기술하였다.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은 참여자의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있는 기술을 추출하고, 이를 일반적 진술로 재진술하여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하여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방법론이다(Shin, Kyoung-Rim, 2005).

##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표시한 7명의 참여자였다. 연구 참여자는 지체장애자였으며, 그 중 1인은 안면장애도 가지고 있었다. 지체장애의 원인은 소아마비, 혈관종, 뇌졸중, 근육병, 절단장애, 뇌성마비이었으며, 모두 후천적장애자였으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본 프로그램에 통학하고 있었다.

## 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구성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B시 소재의 일개 장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1041386-20140618-HR-004-03)을 득한 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장애인 봉사활동으로 Rapport 형성이 잘 형성된 간호학 석사과정 연구원 1인에게 면담에 관한 방향과 면담법을 교육하였다. 연구원은

면담 후 필사를 하였고, 본 연구자는 면담자료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추가적인 면담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하에 복지관에서 면담하였다. 첫 자료수집은 면대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후 이차적으로 보충이 필요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전화 또는 재방문하여 면담이 이루어졌다. 총 면담횟수는 2~3회이며, 면담이 종결된 후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4. 자료분석 및 연구의 타당도 확보

자료분석은 자료수집을 한 당일 혹은 그 다음 날까지 하여,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고, 자료수집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사회복지 교육프로그램의 참여하는 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Colaizzi(1978)의 분석법에 기초하여 의문나는 것에 대해 재질문하여 의미를 진술하고, 다시 원자료를 확인하며, 참여자 공통의 일반화된 진술로 범주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Lincoln과 Guba (1985)의 엄밀성 기준인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ability)을 기준으로 점검하였다.

본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현장감 있는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면담과정에서 연구원의 중립적인 태도와 참여자 자신의 진술 기록을 확인시킴으로써 자신의 경험에 합당한지 확인하였다. 적용성은 연구의 외적타당도의 개념으로 다른 상황에서도 연구결과가 적용가능 하도록 일반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였으며, 다른 대상자에게 읽어보게 함으로써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료 분석 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 1인의 평가자문을 받았으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메모된 연구자의 의견과 참여자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의식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여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Ⅲ. 연구 결과

본 연구결과, 지체장애인의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료의 의미있는 진술에서 129개의 재진술, 63개의 구성된 의미, 35개의 주제, 13개의 주제모음 및 6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Table 1> 참조).

### 1. 건강소외의 생활방식

참여자들은 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증상에 대해 무지하였고,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하였으며, 뇌졸중으로 지체장애자가 된 참여자 역시 사고 전에는 자신의 혈압이 높은지도 몰랐으며, 통증이 있어도 참고 병원에 가지 않아 결국에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 갔던 경험이 있었다. 생활습관도 짜고 매운 음식을 선호하였고, 음주와 흡연, 인스텐트 식품 등 간편하고 자극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한 삶의 방식을 가졌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약물복용을 간과하였으며, 두통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지내며,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질병에 대해 잘 몰라 치료는 소홀히 하며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불건강한 생활습관과 무지로 인한 치료불이행은 건강소외의 생활방식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 “술은 한 달에 25일 하루에 한 병 반 정도를 마셨어요. 반주로 해가지고.. 짜게 먹고,, 돼지고기 소고기 거의 매일 먹었어요. 밥의 세배 정도 양을 고기를 먹었어요. 하루에 한갑 정도 담배 피고,, 라면도 많이 먹고 짜게 먹고, 맛있겠다 해가지고 술을 한잔 먹고, 또 한잔 먹는데 빵~ 가더라고 억수로 아프더라고, 이건 좀 아닌데, 이러다가 그냥 잤어요. 일어나 보니깐 뭐 원래랑 그대로였어요. 그래

서 밥 먹을려고 보니깐 젓가락질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병원도 안갔어요.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혼자 안산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 가족도 없었어요. 한 열흘 가까이 그냥 지내다가 정말 아프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아는 친구한테,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내 정말 아프다고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나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사고 전에는 내가 혈압이 높고 이런걸 아무것도 몰랐어요. 병원에 한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 사고 나기 3년 전부터 오른쪽이 전체가 계속 다 아파서 막 아플 때마다 때리고 그랬어요."

## 2. 신체장애로 인한 무력감

참여자들은 건강에 소홀하게 생활하다가 후천적으로 발생한 신체장애 또는 장애가 처음 발생했을 때의 갑작스러움에 의해 당황하고 장애로 인한 사회적 제한을 받음에 따라 스스로 고립되는 경험을 하였었다. 안면마비와 혈관종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을 느꼈으며, 조절되지 않는 통증 때문에, 수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전반이 흐트러지고, 가족관계에서의 원망과 한탄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어왔던 것이다. 또한 근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수명이 짧아 곧 죽을 수 있다고 하여 자신의 삶을 방황하고 자포자기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생업에 뛰어들거나, 방탕한 생활로 무의미한 삶을 연명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진술은 갑작스러운 장애에 당황함과 사회적으로 고립됨이었으며, 이는 신체장애로 인한 무력감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서 정밀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는 제 병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요. 희귀병이라고 해가지고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 했는데 결과가 근육병이라고 나온 거예요. 의사가 많이 살아봤자 2년이라고 했어요."

"억수로 심하게 아플적에 학교가기 싫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막,,,막,, 울면서 땡깡 비슷하게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깐, 내가 아픈 거에 대해 얘기하니깐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서러운지 울고, 이런 적이 있어서, 그 뒤로부터는 안 물어봐요"

## 3. 사회적 지원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주변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가족, 이웃, 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이 떠나갈 때 혼자서 살아가야 함에 대한 걱정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친목관계를 다지고 있었으며, 생계와 관련해서는 부모, 형제, 자매에게 물심양면의 지원과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활동보조인으로 경제적 도움, 장애수당 등의 수령 등 사회복지적 지원을 받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자의 진술은 인적 지원과 복지적 지원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합하여 사회적 지원으로 범주화화였다.

"형제들이 있다는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되죠. 제가 처음 일을 했을 때, 인쇄업을 했을 때, 부산 시내 인쇄는 거의 제가 다 돌렸어요. 형님이 시청에 계시니깐 소개를 다 해줘서, 그럴 때 하고, 일이 있으면 누나들한테 연락하니깐 누나들이 다 도와줘요. 반찬도 해주고, 어디 갈일 있으면 같이 가고, 집에 일 있으면 도와주고.."

"장애인활동보조로 일할 때는 수입이 5~60정도 됐어요. 지금은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나이가 30살 이상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별도가구라고 해서 수급자 신청을 받아줘요. 2년 전에 그걸 신청했어요. 채택이 되어서 같이 살더라도 별도가구가 되어 제가 수급을 받아요."

## 4. 긍정적 동기화

참여자들은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목표를 만들고 달성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고자하는 의욕이 높았다. 비록 장애로 인해 학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나,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이해력이 낮은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며, 배움에 대해 숙연한 자세로 의지적 노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참여자들의 배움의 의욕은 학업의 연장,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진술되었고, 이는 긍정적 동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학업을 마칠 수 있으니깐 좋고, 그거는,, 장애인들도,, 우리들도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되겠다 싶어가꼬,"

"계산력, 처음에 저 혼자 살면서 은행 업무 못 봤어요. 100% 도우미 누님들한테 의지했지. 내 스스로 잔고가 얼마 있는지 계산을 못했어요."

"이제 자막에 글도 따라 읽고. 예전에는 노래로,, 노래를 엄청 좋아했는데, 글을 모르니깐 맨 날, 그 뜻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대학까지 갈 마음이 있었어요. 대학 나와 가지고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현대자동차 가서, 일 하고 싶어요. 큰 회사 가려면 대학까지 나와야 하잖아요."

## 5. 전인적 건강을 위해 노력함

참여자들은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적교류를 통해 자신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기하기 시작하였다. 집에서만 지냈던 과거와 달리, 프로그램에 통학하면서 걷기운동을 하는 것으로 운동량을 늘리기 시작하였고, 근육과 관절을 단련하기 위해서 수영, 공 운동을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비만이 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매일 체중을 측정하면서 자가 감시도 하고, 고혈압과 당뇨 조절을 위해 식사법도 실천하게 되었다. 이러한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였으며,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는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생활, 동료와의 교제, 인터넷 쇼핑 등 본인에게 적합한 활동으로 정신사회적 건강을 다지고 있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신체적 건강관리와 자신에게 적합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노력을 전인적 건강을 위해 노력함으로 범주화하였다.

"보치아라고 공 굴리는 운동이 있거든요. 꾸준히,, 저가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세 번씩 하거든요. 1시부터 4시까지 한 4시간 합니다. 뭐 정신이 맑아지고 승부욕도 생기고,, 이게 게임입니다. 장애인올림픽 정식 종목이거든요. 아내하고도 하고 동료들과도 하고,, 금곡에 있는 제가 연습하는 장소를 하나 구했거든요. 운동하고 나서 사람들이 몸이 많이 다져졌고 좋아졌다, 덩치도 좋아졌다고 그래요. 공을 굴리고 또 저희 같은 손을 못 쓰는 사람을 위해서 공 굴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공 굴리고 또 각도도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수학 공부도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뇨와 혈압이 있게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싱겁게 먹어요. 주로 김치, 국, 야채, 오이, 양파 등 생야채를 곁들여서 먹죠. 고기는 한 달에 3번 정도 먹어요. 과일은 안 먹어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고. 받았을 때 해소방법은 내가 교회 다니니깐, 교인이다 보니깐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죠."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잠자는 거예요. 어쩔 때 되게 기분 나쁜 날이 있어요. 괜히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빠. 그 와중에 잠이 오면 잔다고. 그래서 일어나면 기억이 안나, 그럼 괜찮아지지."

## 6. 성취감

참여자들은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을 다니면서 학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각자 학업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친목관계로 학업에도 도움을 받고 자기 나름의 성취도 해 나가고 있었다. 학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도 하고, 자격증 공부를 하여 성공하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도 하였다. 또한, 스스로 깨달음과 사회인식수준도 이전보다 높아져,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의식도 갖게 된다. 이러한 성취감들은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성취감을 얻는 참여자들은 건강상태도 양호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성과의 만족감, 사회생활의 자신감, 건강의 향상을 성취감으로 범주화하였다.

"아직까지 배운지 얼마 안되서,,,일단은 머리를 쓰

니깐, 일단 뇌세포가 좀 살아난 것 같아요. 게임 때문에 죽었던 뇌세포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과제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과제를 하고 오니깐 단어 외우는 것, 그거 외우니깐 재미가 있구요. 옛날 생각도 나구요. 좋고, 행복하고, 그냥,, 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게 즐거워요. "

"요새는 얼추 내가 메뉴판 들고, 내가 다 보고, 뭐 내가 먹고 싶으면 요거 먹고 싶다. 다 할수 있으니까 그게 좀 좋은 거 같아요. 첨에는 내가 몰랐는데, 다른거는 내가 인자 오데 가고 싶다하면, 내가 직접 차를 가지고 가지요 .."

"내가 살이 찌지 않구나, 몸이 조절 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위안이 되고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 운동 시작할 때는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런데 한 몇 시간 운동하다보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또 운동하면 오른쪽도 힘이 잘 들어가고, 잘 움직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운동하면 막 엔돌핀이 돌아요. 중풍 걸리기 전까지는 운동하면 피곤하기만 했어요. 쉴 때 편한데 운동할 때 좋은걸 몰랐어요. 그런데 중풍 걸리고 나니깐 운동할 때 짜릿한 게 느껴지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Table 1> Categorizing by Colaizzi' method

| Categories (6) | Themes (13) | Theme Clusters (35) |
|---|---|---|
| Life patterns exclusive health | Living habits with unhealthy | Disregarded their prescriptions |
| | | Eating on unhealthy foods |
| | Noncompliance by ignorance | Unable to medication on time |
| | | A sick headache by having paralysis |
| Powerlessness by physical disabilities | Confusion with feeling on disabilities | Hand paralysis from the sick headache |
| | | Dumb with stroke |
| | Isolated from their society | Wariness on the others |
| | | Refused to be hired |
| | | Attacked by school friends |
| Social supports | Assisted from others | Taking daily helps from their family |
| | | Taking advise from younger students |
| | Helps from welfare center | Taking advise from younger students |
| | | Admitted hospital with helps from friends |
| Positive Motivation | Extended learning | Learning to an foreign language |
| | | Perceived for basic learning process |
| | Pursuing their own success | Having the goal for cyber-university |
| | | Setting the goal to be a consultant |
| Seeking to be holistic health | Physical health care | Playing swim, ball and walking |
| | | Taking regular health screening. |
| | | Checking body weights daily |
| | | Taking healthy diets for preventing diseases |
| | Settle down stress by oneself | Getting on church with prays |
| | | Talking abouts their friends on problems |
| | | Sleeping and forgetting bad things |
| | | Mind control by Internet shopping. |
| | | Thinking the weak person than me |
| Sense of accomplishment | Satisfaction by their performance | Acquired high score in learning |
| | | Acquired an certification in consultant |
| | | Good feeling of brain in learning process |
| | Confidences in social life | Understanding in human right as themselves |
| | | Getting know how to be friend |
| | | Having patterns in saving money |
| | | Having ability to go independently |
| | Improvement in health | Feeling comforts with controlling body |
| | | Feeling refresh by exercises |

## Ⅳ. 논 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장애이전에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무지하여 불건강한 생활습관이 누적되면서 신체적 장애가 가중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사회적인 단절과 신체적 무능에 따른 무력감을 체험하였으며, 장애과정에서 가족, 친구, 이웃의 도움과 장애인 사회복지정책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동기를 만들었다. 비록 장애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유지하려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습관을 만들어 가며 전인적 건강을 추구한 것이었다. 또한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은 학습성과, 사회생활의 적응, 건강상태의 증진에 따른 만족감을 경험하며, 자신의 사회화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작용하였던 것이었다.

재가장애인의 재활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보건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국가에서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인적, 물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재활치료와 가정방문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었다(Kim, Sang-Youp · Kang, Kyung-Sook · Kim, Seung-Hee · Lee, Jeong-Un & Chang, Mi-Young 201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주로 건강관련서비스로 교육적 요구에는 대응하고 있지 않아 신체적 기능의 향상과 건강유지가 주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국외연구에서 장애인의 비만과 장애됨에 대한 질적연구에서의 주제는 일상생활의 경험, 서비스의 접근성과 변화에 대한 반응이 주요 주제로 도출된 바 있었고, 여기서 국가보건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장애로 인해 비만이 초래되며, 수준높은 관리와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됨을 보고하고 있었다(Pain & Wiles 2006). 국내 연구에서도 이용률이 감소하는 이유가 재활서비스의 접근성 때문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Choi, Gyeong-Jin·Kim, Keon-Yeop·Lee, Duck-Hee ·Han, Chang-Hyun & Choi, Se-Mook 2011).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장애로 인해 비만에 활동량이 적어 비만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식생활 및 운동생활을 실천하고 있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가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장애인을 위한 사회운송수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에서 목표를 가지고 사이버대학을 가거나 심리상담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생활을 계속하기를 바라고 있어 이는 직업재활과도 연결이 된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한 문헌에서는 작업치료를 통해 작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자가간호, 여가활동도 증진되었음이 보고되고 있었다(Verhoef, Roebroeck, Schaardenburgh, Floothuis, & Miedema 2014). Gretebeck, Ferraro, Black, Holland와 Gretebeck (2012)의 연구에서도 레크레이션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장애위험률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된다고 보고된 바 있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문헌에서 장애인의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에 대해 연구되고 있으나, 주로, 건강상태 또는 그로인한 직업의 연계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배움을 매개로 하여 그들의 지식 및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사회적응을 위한 발판을 삼은 것이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되는 경험의 기술인 것으로 사료된다.

##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은 ‘건강소외의 생활방식’, ‘신체적 장애로 인한 무력감’, ‘사회적 지원’, ‘긍정적 동기화’, ‘전인적 건강을 위해 노력함’, ‘성취

감' 으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범주는 순차적으로 기술되었으며, 각 주제는 서로 연결되어 주제 간의 상호작용으로 참여자들의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장애인들의 건강과 사회화 경험에 대한 도출된 주제를 바탕으로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적 자료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목적적 표본추출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의 경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한점이긴 하지만, 장애인 복지와 교육에서의 장단점과 대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체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발견이었다.

## References


Choi, Gyeong-Jin · Kim, Keon-Yeop · Lee, Duck-He e · Han, Chang-Hyun & Choi, Se-Mook(2011). The rehabilitation services util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 rural area,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Community Health, 36(4), 227~237.

Colaizzi, F. E.(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pp. 48~71).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Gretebeck, R. J. · Ferraro, K. F. · Black, D. R. · Holland, K. & Gretebeck, K. A.(2012). Longitudinal change in physical activity and disability in adul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36, 386~394.

Kim, Kye-Ha · Kim, Ok-Soo(2005). Influencing factors on HRQOL of physically disabled person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5(3), 478~486.

Kim, Sang-Youp · Kang, Kyung-Sook · Kim, Seung-Hee · Lee, Jeong-Un & Chang, Mi-Young(2015). Utilization status of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services and depression by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ommunity,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0(1), 101~116.

Ko, Un & Hong, Suk(2013). A study on nondisabled people's sense of social distance from the disable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2(4), 127-151.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Lee, Hea-Young(2006). Effects of a rehabilitation nursing program on muscle strength, flexibility, self efficacy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disabil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3), 484~492.

Lee, Jee-soo(2011). The effect of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self stigma on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7(1), 277~299.

Lee, Sung-Dae · Hong, Jung-A & Yeum, Dong-Moon (2012).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 of internet addiction related to disabled person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Rehabilitation Engineering and Assistive Technology Society of Korea, 6(2), 63~6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5).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ability. Daejeon: the Author.

Pain, H. & Wiles, R.(2006). The experience of being disabled and obese.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8, 1211~1220.

Shin, Kyong-Rim et al.(2005). Methodology of Qualitative Research.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Verhoef, J. A. · Roebroeck, M. E. · Schaardenburgh, N. V. · Floothuis, M. C. & Miedema, H. S.(2013). Improved occupational performance of young adults with a physical disability after a vocational rehabilitation intervention. Journal of Occupation and Rehabilitation, 24, 42~51.



- Received : 18 December, 2015
- Revised : 05 January, 2016
- Accepted : 11 January, 2016